

철학

편협한 시각 바로잡을 세계철학 소개

김광명

승실대 교수·철학

유럽대륙과 영미철학의 큰 흐름 사이에서 다문화시대에 걸맞은 세계의 철학이 국내에 소개되리라 본다. 기술과 진보에 대한 문명비판적 검토, 자연과 인간의 조화 속에 생태학적 균형을 모색하는 작업 등 다각적인 영역에서의 공동연구 작업은 계속 요청될 것이다.

96년 한해 철학 부문에서 일어난 굵직한 모임이나 저명 학자들의 방한(訪韓) 및 출간된 저술들을 돌아보면서 이를 바탕으로 97년을 전망해보려고 한다.

우선, 철학적 관심과 흐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일은 크게 세가지로 간추려 볼 수 있겠다. 4월 중순에서 5월 초에 걸쳐 한국에 머무른 위르겐 하버마스, 동아일보와 중국의 인민일보 공동주최로 8월 하순에 열렸던 '동양사상과 사회발전'이라는 주제의 국제학술대회, 그리고 12월초에 있었던 리차드 로티 교수의 방문이다.

동양사상의 계승과 발전문제에 관한 논의는 새로운 세기의 전환점에서 학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면에서도 꼭 중요하다. 특히 도가 사상의 조화관, 유교윤리와 연관한 경제윤리의 물음, 신유교와 우리의 개화사상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들은 참으로 시의적절한 연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전통사상을 새롭게 해석하여 변용과 창신(創新)을 꾀한 《신실학사상론》(윤사순)이나 한국도교사상연구회가 펴낸 《도교의 한국적 변용》은 돋보이는 저술이다. 다른 한편 리하르트 빌헬름이 서구문화적 시각에서 본 《주역강의》는 우리의 주역이해에 좋은 참고자료가 된다. 전통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아울러 현재의 문제를 밝히기 위한 연구작업이 계속될 전망이다.

후기 자본주의사회의 정당성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한 하버마스는 '이성'에 그 사상적 바탕을 두고 있다. 주관 중심의 근대적 이성을 재구성하려는 하버마스의 기획은 오늘날과 같은 불확실성

의 시대에 충분히 귀기울일 만하다. 본말이 전도된 도구적 이성에 대한 비판서로 평가받고 있는,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계몽의 변증법》이 국내에 번역되어 나왔다.

국내학자들에 의해 씌어진 《하버마스의 비판적 사회이론》이나 《하버마스의 사상》 등은 하버마스의 방한에 맞추어 주제와 쟁점들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근대성 혹은 현대성의 문제와 포스트모더니즘 논쟁은 여러 문제와 맞물려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주관성의 한계문제와 해체문제는 극복이나 단절이냐의 물음과 더불어 더 이어질 전망이다.

유럽대륙의 현상학적 운동과 함께 세계철학계를 양분했던 영미 분석철학의 세례를 받은 로티는 바로 분석철학의 한계를 지적하며, 아울러 서구 근대철학의 종말을 직시하고 새로운 철학을 선언한다. 최근 번역 소개된 그의 《우연성 아이러니 연대성》은 분석철학의 허구를 잘 지적하고 서구 철학의 체계와 이성을 거부하여 인간의 본질을 우연성에 근거하고 천착한 글이다. 개인의 자유와 상상력을 중요하게 여기되 인류의 연대를 지향하는 그의 사상은 인문학과 문화예술 전반을 철학에 끌어들이며 새로운 지평을 마련해준다. 이는 문화상대주의 혹은 문화다원주의 시대를 맞는 전략이기는 하나, 우리의 고유한 입장에 맞는 어떤 대안과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독일과 프랑스 중심의 유럽대륙철학과 영미철학이 큰 흐름을 이루는 가운데 중국과 인도중심의 동양사상에 대한 관심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간 형국이라면, 이제는 다문화 시대

에 접어들어 라틴아메리카·이탈리아·스칸디나비아·아프리카·러시아·동구권 및 중도의 철학이 '세계의 철학 시리즈'라는 모습으로 국내에 소개되어 이른바 세계의 철학시대에 들어온 느낌이다. 이는 동질감과 이질감이 공존하는 중에 삶의 양식에 대한 상호이해와 공감에 절실히 필요한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여전히 전국규모의 학회에서, 그리고 지역적인 배경과 특성 또는 주도적인 학자의 이름을 내건 여러 학회에서 활발하게 발표회가 열리고 있으며, 그 결과물이 학회지의 모습으로 결실을 맺고 있거니와 이는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 한국철학회가 편저한 《해방의 철학》은 해방 이후 우리의 삶에 대한 철학적 반성을 통해 민족해방과 인간해방에 대한 총체적인 조망을 마련해준다. 기술과 진보에 대한 문명비판적인 검토가 뒤따를 예정이다.

또한 논리와 논술교육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요청되는 바, 이와 연관된 철학교육에 대한 관심이 아울러 커지고 있다. 이외에 인지과학의 영역에서 철학·언어학·심리학·인류학·인공지능·신경과학 등이 학제적으로 만나 인간의 오묘한 마음의 구조를 밝히는 공동의 연구성과를 내어놓듯이 이런 학제간 연구(Interdisciplinary research) 작업이 계속 요청될 것이다. 이는 최근의 문화비평적 시각과 더불어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어 생태학적 균형을 모색하는 작업의 요청과 맞물려 있다고 하겠으니, 비단 어느 한 영역의 연구성과로는 전체적인 해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말해준다. ❖

〈謹賀新年〉

저작권 관련 분쟁에 대한 신속·적극적인 조정으로 저작권 질서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1997년 새해 아침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전영동

〈謹賀新年〉

국가산업단지로 개발되는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더욱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1997년 새해 아침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웅
사무이사 유도열

〈謹賀新年〉

철저한 내용심사로 우수한 학습자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97년 새해 아침

학습자료협회 회장 崔洛春
사무국장 金喆植